

KTF, 이동통신업계 공정경쟁에 앞장

KTF (사장 이용경)는 4월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李聖憲)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운영대(尹英大) 부위원장, 공정거래협회 김 용(金湧) 회장 등 관계기관 대표와 이용경 사장 이하 전임원, 전국의 영업팀장, 공정경쟁담당자 및 우수 대리점 사



장 등 2백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그 동안 시장혼탁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던 단말기보조금 등 각종 불공정행위 관행을 지양하고 품질향상, 고객을 앞서 생각하는 서비스제공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 자율준수 행동강령(CP; Compliance Program)'이 발표됐다.

KTF가 발표한 행동강령에는 ▲임원급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전직원에 자율준수 매뉴얼 배포 및 주기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내 불공정행위 예방감독시스템 구축 및 불공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담겨 있어 이동업계 공정경쟁 확립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으로는 공정경쟁 자율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행동강령의 세부지침서인 자율준수매뉴얼의 전임직원 배포 및 방송/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지원행위 등 공정경쟁을 해치는 7대 징계대상행위를 선정, 위반자를 징계하고 위반부서에 과징금 등 제반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철저한 처벌조항도 담고 있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李사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업계 최초로 KTF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을 채택하여 앞장서 공정경쟁질서를 형성해 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돌리고 명실공히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운영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도입·시행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SK 텔레콤(사장 표문수, www.sktelecom.com)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린동 본사에서 한국공정거래협회 김 용 회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석근 부회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와 사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표문수 사장은 “시장 대표사업자로서 시장안정화를 선도하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공정경쟁 실천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하여 이번 선포식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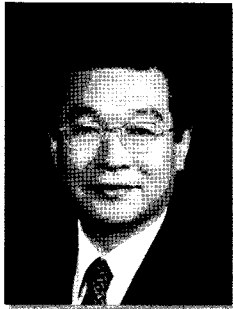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공정경쟁 자율준수 서약을 통해 공정경쟁 실천을 다짐하는 한편, 회사 내부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자체 감독하고 불공정행위 발생시 시정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영업활동뿐 아니라 제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부 지침서인 『공정경쟁 업무편람』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권한과 책임을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하는 등 자율준수를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임직원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들어 사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직원에게 대한 공정경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 용 한국공정거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을 자율준수 하는 경우 기업의 위험 회피는 물론,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SK텔레콤의 공정경쟁 실천은 국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확립과 고객의 이익증진 그리고 국내 통신산업의 세계일류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신한은행

대표이사 이 인 호

금융 · 부동산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대한재보험주식회사

사 장 박 종 원

보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효성데이터시스템(주)

대표이사 최 병 인

정보통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